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조성기	학번	
이메일	Sungkijo3651@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국제정책대학원 / MDP	(국가) 미국
기 간	2017년 1월~12월	[귀국일: 2017년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일

신 청 인 : _____ 조성기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UCSD가 위치한 샌디에고는 미국 서부 최남단 멕시코 국경지역에 위치한 중소 도시로서, LA에서 남쪽 방향으로 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됨.

기후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서 연중 크게 덥거나 크게 춥지 않고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가 계속되어 거주하기에 최적의 날씨임. (미국인들이 은퇴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힘)

대형 한인마트와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보험사, 정비소 등이 많아 영어가 서툴러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 렌트비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비싼 편임. 예를 들어 UCSD가 위치한 라호야 지역 기준 원베드 아파트가 1.7~2천불/월, 투베드 아파트는 2.3~2.7천불/월 정도임.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해안가 관광지라서 식당, 쇼핑 등 기타 물가도 비싼 편임.

학교 관련 본인 경우 갓난 애기를 동반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관찰 결과 샌디에고는 한국에서도 조기유학을 많이 오는 곳으로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영어 공부 시키기에 매우 좋은 환경임. UCSD 근처에 좋은 초중고 학교가 많고, 연수생들 자녀가 많아 초기 정착에도 어렵지 않은 편임.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는 샌디에고에 위치한 유일한 UC계열 명문대로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우수한 편임. 특히 세계적 IT 기업인 퀄컴 본사가 위치하고, 노령의 은퇴자들이 많은 환경상 의료 수요가 많아, 공대와 의대 경쟁력이 높음.

본인이 수학한 대학원의 경우 국제관계 관련 분야로서, 미국 태생 학생보다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각지의 유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각 지역의 맞는 다양한 시각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아시아 경우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급증으로 중국 관련 과목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국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샌디에고는 미국의 주요 해군, 공군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국제 관계학을 공부하려는 군인들이 많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학기 당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4학점 3과목 또는 4학점 2과목 및 영어 수업(2학점) 2과목을 듣게 됨. 주당 전체 수업시간은 9~12시간 정도임.

비학위 과정의 경우 비학위 학생들(주로 한국, 일본 학생으로 구성)만을 위한 수업이 개설되며, 동 수업은 학위 수업보다는 발표, 과제 면에서 이수 부담이 적은 편임.

통상 수업 커리큘럼은 KDI 수업과 매우 유사하며, 시험 보다는 발표와 과제(리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비학위 과정의 경우에도 학기당 1~2과목은 학위 과정 수업을 들어야 하며(비학위 전문 수업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음), 이 경우 수업 내용, 과제, 발표 등에서 언어 문제 등으로 학업 부담이 만만치는 않음.

이를 위해, 비학위 과정 경우 학교측에서 주기적인 학업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어려운 점등을 상담 받을 수 있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비학위 과정의 경우 기숙사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보통 학교 근처 라호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음. 이미 언급했듯이 아파트 렌트비가 매우 비싼 편이나, 그에 맞게 아파트 회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음. 보통 수영장과 바비큐 시설, 헬스장이 비치된 곳이 많고, 시설 고장시에도 신속하게 수리해 주는 편임.

본인이 살았던 웨스트우드 아파트 경우 대형 부동산회사 소속으로 관리시스템이 전문화되어 있었고, Westfield UTC라는 대형 쇼핑몰과 공원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주변 환경이 깨끗한 편으로 입지면에서 추천하고 싶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여행을 원한다면 예약은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음.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대부분이 날짜가 임박할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감. UCSD 경우 여름방학이 3달 이상으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음. 미국 일부 지역은 갈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므로 체계적인 계획을 짜는게 좋음. 예를 들어, 알래스카 크루즈는 5월~9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3월~10월 등으로 계절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는 곳이 있음.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지금부터 약 18년 전 대학생 시절 좋은 기회가 있어 미국 미시간주립대를 약 2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음.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는 넓은 캠퍼스와 훌륭한 학업 환경,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나올수 있는 학생들의 자유분방함과 창의성 넘치는 모습 등을 보며 기회가 된다면 꼭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음. KDI 과정을 통해 그 꿈을 이루었으므로 크게 만족스러움.

실제 미국 대학의 교수법이나 자유로운 학습태도는 창의성과 역동성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최강대국 미국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됨. 특히, 10여명으로 제한된 토론식 수업은 누가 교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참여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은 아무리 엉뚱하더라도 수업에서만큼은 철저히 존중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음.

비단 학업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실제 미국에 거주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서 아파트 계약, 은행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실제로 해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특성에 대해 많이 느낄수 있었음. 일전엔 마냥 선진국이라는 이유로 동경하였다면, 지금은 빈부격차, 인종갈등, 총기사고, 의료문제 등 어두운 면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되고 오히려 안전하고 정이 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갖는 기회였음.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트럼프 정부 이후 외국인의 출입국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임. 특히 입국시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심지어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려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들음. KDI 제휴대학 입학서류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경험상 심사관에게 장기체류하지 않고, 졸업후 제때 귀국한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조금은 입국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음. 미국 체류중 멕시코, 캐나다 등 인근국가로 여행 등을 가길 원한다면 여권 뿐만 아니라 J1, J2 원본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함. 최근 엄격한 입국관리 분위기상 미비시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2년차 미국 또는 유럽 체류 시기는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기 힘든 꿈 같은 시간 일 것임. 각자 목표하는 바가 있겠지만 학업과 가족, 여가 등 균형을 잘 맞춰 계획을 세움으로 보람찬 한해를 보냈으면 함. 1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므로 이것저것 너무 욕심내기 보다는 초반에 몇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음.